

# 도심속 광주시립수목원 내년 봄 문 연다



도심속에 자리잡은 광주시립수목원이 내년 봄 문을 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남구 양과동에 추진 중인 시립수목원 조성사업의

## 남구 양과동 24만6948㎡ 부지에 3개 지구·9개 정원 조성 주변 산책로·등산로도 속속 완공...내년 5월 개원·무료개방

공정률이 90%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는 올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공사가 끝나면 보수·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5월 공식 개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24만6948㎡ 부지의 시립수목원에는 남도숲 등 3개 지구, 가을정원 등 9개 정원을 만들어 진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는 등 수목원 옷입히기에 들어갔다. 시립수목원에는 산사나무·단풍나무·대왕참나무·각종 꽃 등 1045종 26만본이 식재된다. 주변 연계사업도 한창이다. 남구 향동제 주변에 수변길 1.2km를 조성,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시립 제2요양병원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수목원 주변 둘레길 0.4km를 만들

어 향동제와 수목원을 연결했다. 산림청에서도 일대 건지산 국유림에 사방댐 설치와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 등산로 1.3km를 개설하고 워터 등을 조성했다. 수목원이 개원하면 4~5시간의 주변 산책길과 등산코스가 완성된다. 수목원 내 수춘천 정비공사도 수목원 조성 공사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내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한 뒤 내년 꽃 피는 봄 날 개원할 계획이다”며 “주변 사업들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또한 하나의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치매 예방'을 위해 펼치고 있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상담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 전남도, 초고령화사회 진입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강화

전남도가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늘어나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는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2.1%(5만3000명)가 치매를 앓고 있고, 현재 노인 9명중 1명꼴인 치매환자가 오는 2045년에는 14.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1일 '제15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관리 체계의 지역거점 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운영한 치매안심센터는 전남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치매 관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광역치매센터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고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치매검진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치매 상담, 조기 검진,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치매 예방 교육·인식개선 홍보,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 인식표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치매환자 지원 사전등록, 환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치매는 치료법과 약이 없는 만큼 예방과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초기단계에 빨리 치료해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에 4개 시·군이 선정돼 지역 특성에 기반한 치매 친화환경 조성으로 치매 친화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군별로 목포시는 6000만원 규모의 '그드림(Dream) 안심마을', 담양군은 9600만원 규모의 '함께하는 공동체 치매안심 울타리 만들기', 함평군은 1억5400만원 규모의 '치매환자 웰빙 라이프 만들기', 청춘은 바로 지금', 영광군은 8400만원 규모의 '뇌 튼튼! 노후 튼튼!' 사업을 추진한다.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22일 순천 성가톨릭병원에서 열린다. 치매관리사업에 크게 기여한 선문심 보성군 보건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치매관리 유공자 11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전남도지사가 주는 표창을 받는다.

## 전남교육청 '미숙행정'... "방학 중 학교 공기청정기 교체했으면"

### 대여기간 만료돼 2만194대 학기 중 설치... "미세먼지 유입돼 불편"

전남도교육청이 261억원을 투입해 일선 초·중·고 공기청정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제품 철거이후 곧바로 신제품이 설치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시작된 일선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이 계약기간 3년 종료로 인해 지난 1월부터 각 교육지

원청별로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체규모는 830여개 학교의 교실과 교무실, 행정실 등에 공기청정기 2만194대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2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기청정기 설치업체는 각 교육지원청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곧바

로 교실에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롭게 선정된 업체는 회수와 동시에 신제품을 교실 등에 설치해야 하지만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을철 실외 활동이 많아지고 창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교실로 유입돼 학생들

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 급식실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아 창문과 출입문 등을 개방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의 한 지역 학부모는 “학교 옆에서 아파트 건립 공사를 하고 있어 먼지 등이 교실로 곧바로 유입돼 아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도 기침을 자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가 시작되기 전 방학에 교체가 완료됐으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미숙한 교육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 광주시청사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4기 신설

광주시가 시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련 사업체를 선정,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시청사에 급속충전기 4기를 신설하는 한편 노후 완속충전기 35기를 교체한다.

참여 사업자에게는 ▲100kW 급속충전기 1기당 2000만 원 ▲150kW 완속충전기 1기당 150만 원 ▲공용 충전기 운영·관리 1기당 3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선욱 기자

## 전남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확대

### 연말까지 9만5천원으로 1만원 인상...취약계층 4천여명 혜택

전남도는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인상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전남의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맹체육시설 이용 시 1인당 월 최대 9만 5천 원(9월까지 8만 5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등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19~64세의 장애인이다. 도내 4

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유·청소년 svoucher.kspo.or.kr / 장애인 d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카드를 발급받아 도내 가맹시설이나 온라인을 통해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2천970명에게 17억 200만 원, 장애인 356명에게 1억 4천700만 원 등 총 3천326명에게 18억 4천900만 원을 지원했다. 김기평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스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과 장애인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연륜진흥재단  
Korea Intra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1분기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2분기	48,103원	26,697원	17,829원
3분기	1.1배	1.7배	2.1배
4분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합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